

목포시 전국 첫 문학박람회 준비 박차

D-30...추진 방향 등 전반 소개 전시·강연 등 109개 프로그램 문학길투어 등 여행 상품 출시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문학박람회인 '2021 목포문학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7~10일 목포문학관,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 등지에서 열리는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막 30일을 앞두고 추진 방향, 프로그램 등 박람회 전반을 소개했다.

시는 5가지의 문학박람회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체험, 강연, 공연 등 10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문학(文薈)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목포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명 문학인들을 집중 조명하는 '4인 4색 문학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문학산업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출판관, 미디어갤러리(웹툰&드라마&영화관), 글자콘텐츠관, 독립서점관, 헌책방관, 남도문학관 등을 운영한다.

문학을 통한 휴식의 장소 제공한다. 문학 웰니스스테라피존이 그것으로 주행사장인 목포문학관 인근에 위치한 갯바위 입암산 생태공원에서 문학트래킹 등 문학을 매개로 치유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에도 중점을 뒀다. 유명 작가와의 만남, 문학콘서트, 문학아트마켓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근대문학길투어, 목포문학과 일주일 살기 등 문학여행 상품을 출시해 관광객의 주목을 끌었다.

유명 문학인들의 생활거점이었던 근대역사문화공간, 목원동 등 원도심에서는 작가 토크, 연극 공연 등을 비롯해 작가들의 생가와 작품 배경지를 둘러보는 골목길 문학관을 운영해 목포의 문화유산

과 문학의 만남을 시도한다.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방역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독,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동선 등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사전 예약제 현장 인원 제한, 온라인 관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문학박람회의 대중화와 전국화를 위해 문학인, 문학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단체와 힘을 결집시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설가 한승원씨와 시인 황지우씨를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목포 출신 문학평론가인 황정산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의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세부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을 마무리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문학박람회가 목포문학의 고유성과 우수성, 한국문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문학의 대중화를 촉발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철새 기착지 흑산도에 '새 공예박물관' 준공

20개국 공예품 700여점 전시

신안군이 국제적인 철새 중간기착지인 흑산도에 세계의 다양한 새 공예품을 전시한 새공예박물관을 준공했다.

<사진>

신안군은 흑산도에 각국의 다양한 새 공예품을 한 곳에 전시하고자 2012년부터 목각, 유리,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을 모았다. 유럽 등 20개국에서 산 700여 점의 다양한 공예품들로 공예품 중 대부분은 신안군청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등 공무 수행 중 국외에서 산 작품들이다.

가족들과 떠난 여행, 갓 결혼해서 떠난 신혼여행 등 개인적인 일정 중에 사는 등 직원들의 손때가 묻고 사연 있는 작품들도 많다.

박물관은 '흑산도의 동박새', '세계의 조류', '조류 공예품' 3개 주제로 꾸며졌다.

'흑산도의 동박새'의 동박새는 흑산도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텃새로 주민들과 가장 친숙한 새다.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고 붉은 동백꽃 꿀을 좋아해 동백나무 숲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박물관에는 실제와 똑같은 형태의 동박새 목각을 미국에서

주문 제작해 60점을 동백수 디오라마에 전시했다.

'세계의 조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벌새류를 비롯해 큰부리새, 앵무새 등 200여 점의 다양한 조류 목각을 볼 수 있다. '조류 공예품'은 모두 직원들이 직접 구입한 다양한 공예품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450여 점이 전시됐다.

박물관 내부는 74㎡로 작은 규모지만 공간을 꾸미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각각의 주제, 벽화 내용,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전시물 위치, 포토존 조성 등 박물관 내부의 모든 것을 직원들이 고민하고 직접 기획·설치했다.

박물관 외부에는 아프리카 잠브웨이 쇼나조각 200여점이 자연석, 야생화와 함께 어우러진 8500㎡ 규모의 새조각공원을 함께 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도에 조성된 새공예박물관은 지난 10년간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주 의미 있는 박물관으로, 공예품 하나하나 직원들의 사연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대중 나눔재단 목포 아동시설 교육물품 지원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이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과 함께 목포 지역의 어린이 복지시설을 찾아 '교육용 물품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지난 6일 목포공생원과 경애원에 아동용놀이키트와 화이트보드 등 1000만원 상당의 교육용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교육용 물품 전달식은 현대중공업1%나눔재단을 대표해 현대삼호중공업 봉사동아리 한울타리 권형록 회장과 희망플러스 이경수 총무가 자리를 함께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을 지속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은 그룹사 임직원의 급여 1%를 모아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



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위치한 영암 지역에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 어르신 40세대에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진지방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불갑산 '송악' 등 36본 영광군 노거수 신규 지정

영광군이 마을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해 36본을 영광군 노거수로 신규 지정했다.

영광군은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정자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 조례를 제정해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된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했다. 송악은 쌍떡잎식물 산형목 두릅나무과의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돼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백수읍 양성리 노거수.

완도군 쇼핑물 '완도군이숍' 추석맞이 할인행사 전 품목 건당 3000원 자동할인

완도군의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숍'이 추석맞이 전 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완도군이숍 쇼핑몰에 등록된 전 품목에 대해 건당 3000원이 자동 할인되며 배송은 무료다.

추석 전 주문은 15일 마감되며, 16일 이후 주문건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완도군이숍은 활전복, 순살전복, 전복가공품뿐만 아니라 감·미역·다시마·멸치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세트, 유자차, 모링가차, 황칠즙 등 110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우체국쇼핑몰 내 기획전으로 '완도군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복과 해조류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완도 대표 수산물인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 불릴 정도로 타우린과 아르기닌 함량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추석에는 대박(6~10미)의 경우 주문량에 비해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가 많았다.

지난해 완도군이숍의 전복 판매량은 2019년 추석 기간 대비 61%나 증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추석 명절에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완도 수산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